

‘트럼프 新 행정부’ 동향 논의… 산업·통상 등 협력방안 모색

산업부,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

모든나라에 20% ‘보편관세’ 우려
주재국별 기회요인 발굴에 총력
수출업체와 릴레이 간담회 열고
민관 대협력 TF 구성·대응키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밤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제네바·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향후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배터리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속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집권 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나라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시행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등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또는 정책 방향 전환도 예상된다. 특히, 관세 강화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날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되며 기대했던 이익이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업종별 대응에도 나선다. 또 업계와 함께 ‘민관 대협력

전담반(TF)’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업계와 워팀 대응방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서울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각각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업계는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고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기준 자동차와 배터리산업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16%를 차지한다.

안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이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워팀을 이뤄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참석해 트럼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AP뉴시스

美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발탁

예상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수장으로 발탁됐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대선 승리 ‘일등 공신’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주요 자리에도 머스크와 동행하며 그가 차기 행정부에서 실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견됐다.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베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됐다.

초대 국방부 장관에는 육군 소령 출신 피트 헤그세스 포크뉴스 진행자가 지명됐다.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주요내각 ‘총성파’ 구성될 듯

또,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일명 ‘그린베레’로 알려진 미 육군 특수전부대원 출신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발탁됐다.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향후 주요 내각에도 트럼프의 최측근 이른바 ‘총성파’로 구성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각) 본인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부효율부를 이끌) 두 훌륭한 미국인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며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구하기’(Save America) 운동의 필수적이며 잠재적으로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화 작업을 늦어도 내후년 4월까지 완료해 탈(脫)관료주의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정부효율부는 저명한 기업 수장들을 기용해 낭비성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효율화한다는 목적으로 신설을 검토해 온 새 내각기구다. 여기서 기업 수장으로 억만장자이자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가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승일 기자 won@

취업자 수 증가폭 5개월來 최소… 20·40대는 감소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2884.7만명, 8.3만명 ↑
30대 6.7만명, 50대 1.2만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증가 폭은 둔화하며 5개월 사이 최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5월(8만 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올해 6월 9만6000명 증가 이후, 7월

부터 9월까지의 매월 10만 명 넘게 증가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10만 선을 밑돌았다.

10월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7000명,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 30만 명, 70세 이상에서 12만9000명, 75세 이상에서 5만7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6만7000명, 1만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20대와 40대는 각각 17만5000명, 7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8만2000명 줄어들며 24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5.6%로 전

년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취업자 증가폭은 9월에 비해 축소됐다”며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 감소의 상황에서 고용률이 계속 증가해왔던 폭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3000명 줄어든 4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가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9만3000명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6만7000명 줄며 역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16년 9월(-7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도매 및 소매 분야에서는 14만8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2만4000명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만8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69.8%로 집계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다.

/세종=김연희 기자 kys@

전자시계 반입 금지… 교과서·참고서 소지 ‘부정행위’

오늘 전국 1282곳서 ‘수능시험’
이후 면접·논술 본격 대입 레이스

14일 52만2670명이 응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82곳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전자시계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교과서나 참고서는 시험시간 중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 면접·논술 등 본격적으로 대입 레이스가 시작되므로,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대학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준비령 시 문제지 상태 확인 및 성명 등 기재…본령 전 문제 풀면 ‘부정’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

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을 절대로 소지하면 안 된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대다수가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해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원을 끄더라도 휴대전화는 제출해야 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과서나 문제집, 기출문제지는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시험시간 중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준비령·본령·종료령 순으로 울리는 타종에 주의를 기울이고 엄수해야 한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

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가능하다. 준비령과 본령 사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이 경우가 적지 않아 수험생들은 각 타종에 맞춰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수능 끝나면, 대입 레이스 시작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정시지원 대학을 추려야 한다. 이어 수·정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할 때는 원점수 등 급커트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예상 표준점수와 예상 백분위를 확인해 ‘정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서울 금천구 동일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논술,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는 수능 다음 날부터 실시하므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수시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수능 직후 빠르게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시업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